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28일 월요일 음 5월 19일 (11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C. 낮 최고기온은 26~28°C로 전망된다.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20% probability valu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05:24), 달뜨기 (15:50), 해질 (19:47), 달지기 (02:19).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Table with 2 columns: 주간예보 (구름 많음) and 22/27°C.

Table with 2 columns: 미세먼지 (PM10) and 초미세먼지 (PM2.5) levels.

월드뉴스

“드라마처럼”... 헤어진 말레이 쌍둥이

병원 실수로 19년 만에 재회

말레이시아의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실수로 헤어진 쌍둥이 자매가 19년 만에 서로의 존재를 공식 확인하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드리아나, 아드리아나, 노라티라.

27일 베르나마봉신 등 따르면 20년 전 클라탄주 코타바루의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와 또 다른 여아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 본래 아드리아나와 노라티라가 쌍둥이 자매고, 아드리아나는 부모가 다르다.

연히 마주쳤다.

친구들의 주선으로 노라티라가 아드리아나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많은 눈의 끝에 작년 9월 유전자(DNA) 검사 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의 실수로 쌍둥이 자매의 부모는 아드리아나와 아드리아나를 집으로 데려가 이란성 쌍둥이 인 줄 알고 키웠고, 노라티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컸다.

결과는 두 사람이 99.99%의 확률로 쌍둥이 자매라고 나왔다.

이어진 검사에서는 쌍둥이인 줄 알 았던 아드리아나가 실은 노라티라를 키운 부모의 친딸로 확인됐다.

쌍둥이 자매는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자랐고, 운명은 이들이 만나도록 이끌었다.

이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출생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는 중이다.

2019년 3월 코타바루의 한 슈퍼마켓에서 아드리아나는 노라티라와 우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김성훈 편집부장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비상식적인 가격이 어제오늘일이나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서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래도 언젠가는...”이라며 내집 마련의 꿈을 가졌던 이들은 현실 앞에 꿈을 내려 놓는지 오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가격은 올 6월 기준 8%대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2012년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상승률이다. 제주지역 웬만한 아파트는 월급쟁이들이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초 10억대 아파트 등장이 이미 도내 언론을 통해 경제면을 가득 채웠던 터라 이젠 5억 전후의 가

집 값 폭등, 제주사람들은 화가 난다

격은 놀랄지도 않다.

집값 문제는 제주, 나아가 우리나라 만이 겪는 고통이 아닌 듯 하다. 전세계가 집값 상승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 조사 결과 56개국의 3월 주택가격이 1년새 평균 7.3% 올랐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무려 11% 상승하며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현지 매체들은 부동산 급등을 놓고 “시장이 미쳤다”고 표현하고 있다.

제주 집값도 “미쳤다”고 해도 무방할 듯 하다. 아니, “미쳐가고 있다”고 해야 할 듯 하다. 지금껏 흘러온 상승 추이를 볼때 집값이 내려가기 보단 앞으로 계속 오를 듯 싶기 때문이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게 뻔한 노릇이다. 집값 상승은 전세와 월세 상승을 야기하고 더불어 물가 오름세

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제주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은 더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집값 상승의 결정적 원인이 외지인들의 투기가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제주도로 눈독을 들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기준할때 거래된 아파트 3채 중 1채팔로 외지인이 매입했다는 것이다.

10억대 아파트 출현은 제주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 제주지역 평균 임금은 타지역보다 낮다. 17개 시·도 중 꼴찌다. 소득은 적는데 집값은 높으니, 당연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제주의 경우 2020년 기준 자기집이 아닌 비율이 45%다. 제주는 어느지역보다 맞벌이 비중이 높다. 제주사람들, 그만큼 열심히

히 살고 있다는 증거일테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물가가 높은 제주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집값 상승은 제주도민간 자산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도민들 사이 갈등을 부르고 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제주사회의 갈등이 외지 자본에 의한 개발과 그에 따른 이익의 불균형으로 촉발된게 사실 아닌가. 그래서 끈끈했던 공동체가 무너진 마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친인척 간에도 왕래를 끊고 남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엔 흔하디흔하다.

바야흐로 대선 정국이다. 지난 재·보선의 승패는 부동산이 갈랐다. 내년 민심을 얻는 척도 또한 당연히 부동산이 될 거다. 문득 또 궁금해진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후는?. 집 등 부동산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그때를 고대해 본다.

열린마당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한수정 제주시 조친읍사무소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7차)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업무를 새로 맡자마자 밀려오는 민원에 정신 없이 보냈었는데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믿기지 않는다. 6개월동안 조친읍에 접수된 유족 추가신고수만 천명이 넘는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는데도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과 희생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단 한명의 희생자 및 유족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추가신고를 하실 분들은 꼭 잊지말고 하셨으면 한다.

신고장소는 도 4·3지원과,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고인은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강미랑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된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또는 12kw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모든 차량들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1월·3월에 연납한 차량과 사실상 멸실, 폐차장 입고 차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역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

교육세가 가산된다.

6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전체 연세액의 5%가 공제돼 자동차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주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2021년의 상반기도 마무리 돼 가고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를 당부드린다.

Advertisement for Jeju Hanri Park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citrus fruits like Red Hwang, Cheonhyang, and Mimi.

Advertisement for Jeju Hanri Park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citrus fruits like Red Hwang, Cheonhyang, and Mimi.

Advertisement for Jeju Hanri Park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citrus fruits like Red Hwang, Cheonhyang, and Mimi.

Advertisement for Jeju Hanri Park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citrus fruits like Red Hwang, Cheonhyang, and Mimi.